



하루에 하나

2026.7.7

JUL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532.70원 (+7.10원)

KOSPI

8,051.33 (-37.01, -0.46%)

KOSDAQ

847.07(-21.34, -2.46%)

국고채 10년 금리

4.203(+0.006%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글로벌 ETF Weekly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실적시즌에 앞선 이벤트 집중 구간 [박승진]
DIN (Doo It Now)	의심은 가격을 흔들고, 숫자는 기회를 만든다 [김두연]
주간 하나채권	[7월 2주] AI 발전이 수요를 자극할 위험 [박준우, 허성우]
ETF Weekly Letter	AI가 잠든 사이에 [장치영]

기업분석

하나금융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은행 중 가장 높은 NIM 상승 예상 [최정욱]
케이엠더블유	C밴드 경매 최대 수혜주, 버라이즌에서 큰 수혜 볼 것 [김홍식]
한국콜마	계속 올라가는 실적 전망 [박종대]
S-Oil	OSP 8월부터 마이너스 전환. 확신의 매수 구간 [윤재성]
삼성에스디에스	하반기로 갈수록 좋다 [이준호]

산업분석

통신 장비	본게임은 어퍼 C 밴드 아닌가요? [김홍식]
Weekly	
제약/바이오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른 전망 [김선아]
건설	GW급 AI 데이터센터 수혜 [김승준]

글로벌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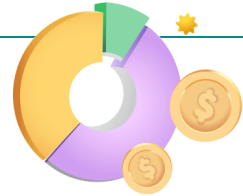
글로벌 에너지	연료전지 업데이트: 퓨얼셀에너지는 next 블룸에너지가 될 수 있을까 [김시현]
---------	--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삼성물산, KB금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삼양식품, 키움증권, 코스맥스, 이수화학, 심텍

글로벌 ETF Weekly

HANA Global Weekly | 2026.7.6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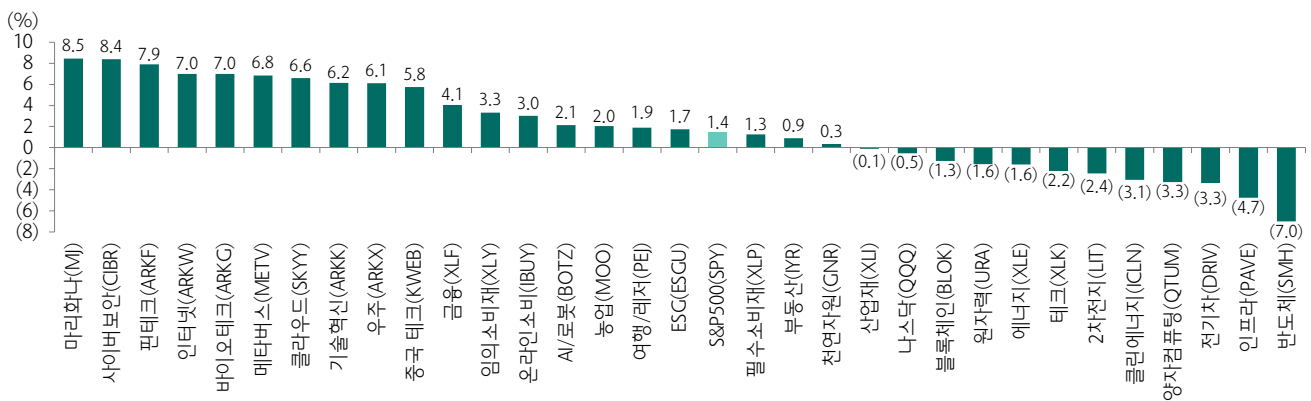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실적시즌에 앞선 이벤트 집중 구간

삼성전자 잠정 실적, SpaceX의 Nasdaq100 지수 편입, SK하이닉스 ADR 상장 이벤트 집중: SMH, PAVE, KBWB, XBI, DIVO 등 활용

- 글로벌 수급:** 선진국 채권형 ETF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ETF 시장의 확장 기초가 유지되었다. 글로벌 ETF 시장을 주도하는 북미지역 주식형 ETF 시장에서 14주만에 자금이 순유출되었고, 유럽 주식형 ETF 시장에서도 투자자금이 동반 유출되었으나 글로벌 선진 주식형 ETF 시장으로 +119.7억달러가 유입되면서 전체 선진국 주식형 ETF 시장의 자금 흐름이 순유입 기초를 이어갔다. 글로벌 채권형 ETF 시장에서는 북미 지역 채권형 ETF 시장으로 +177.4억달러가 유입되면서 선진국 채권형 ETF 시장에 총 +191.4억달러가 유입되었고, 신흥국 채권형 ETF 시장에서도 아시아 지역 중심의 매수세 유입이 나타나며 총 +206.1억달러가 순유입되었다.
- 종목별 수급:** 미국 ETF 시장의 종목별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분기 및 반기 기준 일회성 수급 이동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저가 매수세 유입이 확인되었다. 주식형 ETF 종목군의 경우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VOO와 SPYM으로의 +125.7억달러 자금 유입과 SPY에서의 -120.8억달러 자금 유출 현상이 동시에 진행되었고, S&P500 동일가중 ETF인 RSP와 메모리 반도체 테마 ETF인 DRAM, 미국 제외 세계증시에 투자하는 VXUS 등이 자금 유입 상위 종목 리스트에 자리하였다. Russell1000 가치주/성장주 ETF인 IWD와 IMF에서는 총 -146.8억달러가 순유출되었다.
- 채권형 ETF 종목군의 경우** 일부 경제지표에 대한 해석 변화가 동반된 상황에서 IG회사채 ETF인 LQD와 미국 채권시장 전반에 투자하는 BND와 더불어 미국 장기국채 ETF인 TLT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었으며, BIL(초단기국채), VCLT(장기회사채), BSV(단기채권) 등에서는 투자자금이 빠져나갔다. 달러 강세 및 통화정책 경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 현물 ETF인 GLD와 IAU와, 비트코인 현물 ETF인 BIT와 FBTC에서도 투자자금 유출 현상이 지속되었다.
- ETF 포트폴리오:**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 진입을 앞두고 여러가지 이벤트들을 맞이해야 하는 시간이다. 하반기로 넘어서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실적과 수급의 고민이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확인과 SpaceX의 NASDAQ100 지수 편입, 6월 FOMC 의사록 공개, SK하이닉스 ADR 상장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중시 관점에서는** 역시 글로벌 시가총액 12위, 15위에 자리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 이슈가 단기적으로 주도주 주가 전반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른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더불어 시장의 시수요와 수익성에 대한 해석으로 연결되는 기업들이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SK하이닉스 ADR의 경우 미국중시 상장 이후에는 Micron과의 밸류에이션 비교 과정에서 상대적 저평가 모멘텀이 부각되며 우호적인 수급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SpaceX의 NASDAQ100 지수 편입(7/7) 이슈와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NASDAQ 지수 등 주요 지수 포트폴리오의 편입 효과 및 기대가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 경제지표의 경우** 오는 수요일에 공개되는 6월 FOMC 의사록이 중요하다.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축소하려는 케빈 워시 의장의 연준에서, 정책 방향성을 가늠해볼만한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다. 지난주 ECB가 주최한 신트라 포럼을 통해 케빈 워시 의장은 기대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아졌다고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당장의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다는 부분을 함께 거론하였다. 이중책무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전쟁 충격의 해소와 고용시장 둔화의 추세가 함께 부각되는 시점이 될 때에는 정책 방향의 인식 변화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6월 고용보고서는 경제활동 인구가 눈에 띄게 감소하면서 불안정한 고용시장의 디테일들을 확인시켜 주기도 하였다.

- ETF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Hyperscalers 기업들의 Capex 모멘텀과 AI 산업 성장의 단순한 스토리 하에서 실적 우위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SMH/SOXX/DRAM(반도체), ZAP/POWR(전력), URA/NLR(원전)의 중장기 Core 포지션을 유지해야 하겠으나, 2분기 어닝시즌에 들어서면서 수익성과 수요 해석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만큼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AI 테마 액티브 ETF 종목들인 CHAT/BAI(AI 액티브) 역시 투자 고려 대상 종목군이다. 차익실현과 수급 이동 과정에서 조정이 발생한다면 포지션 확장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투자 중심의 경제 사이클과 트럼프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 글로벌 경쟁 구도 하에서 투자 모멘텀이 유효한 PAVE(인프라)와 AIRR(중소형제조업), XLI(산업재)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는 한편, 연준 정책 인식 변화 및 순환매 가능성과 대형 IB 딜의 증가 흐름을 고려한 KBWB(대형은행)의 편입도 유효한 시점이다. 국면의 특성상 제약/바이오 ETF들인 XBI/OZEM이나 커버드콜 액티브 ETF인 DVO/QDVO 역시 포트폴리오 구성 관점에서 적절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주요 테마형, 섹터 ETF들의 주간 수익률



주: 2026.6.26~7.2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2026년 7월 7일 | Global Asset Research

Equity

Compliance Notice

본 조서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DIN (Doo It Now)

의심은 가격을 흔들고, 숫자는 기회를 만든다

(결론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조정은 강세장의 종료가 아니다. 너무 빠르게 앞서간 가격과 느슨해진 수급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외국인 매도, 국민연금 리밸런싱, 개인 심리 둔화가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수출,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메모리 가격은 아직 시장의 방향을 지지한다. 지금은 도망갈 국면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되는 주도주를 선별할 국면이다.

최근 시장의 의심은 AI 에서 출발했다. 메타가 AI 에이전트 개발 속도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언급하면서 AI 수요 둔화 우려가 커졌다(마이크론 -15.5%, SK 하이닉스 -8.5%, 삼성전자 -7.3%). 그러나 이를 AI 수요의 붕괴로 해석하는 것은 과하다. 본질은 수요의 소멸이 아니라 투자 효율성에 대한 재점검이다. AI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병목은 여전히 메모리에 있다. 시장은 AI 가 사라질 가능성이 아니라, AI 투자가 얼마나 빠르게 이익으로 연결될지를 묻고 있다.

숫자는 아직 의심보다 강하다. 6월 한국 수출은 1,02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70.9% 증가했다. 월간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반도체 수출은 448.2억 달러로 199.5% 늘었다. 매크로 데이터는 시차를 갖지만, 반도체 가격은 현재형이다. 7월 초 DDR4 1Gx8 현물가격은 한 주 만에 1.26% 상승했고, DDR5 수요도 강하게 유지됐다. AI 수요가 구조적으로 꺾였다면 가장 먼저 가격이 흔들려야 한다. 지금 확인되는 신호는 반대다.

수급 우려는 남아 있다. 외국인 매도는 단기 변수가 아니라 상수에 가까워졌다. 상반기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988억 달러(148조원) 순매도했다. 다만 이를 외환위기의 신호로 볼 필요는 낮다. 매도의 성격은 위기 회피보다 차익실현과 리밸런싱에 가깝다. 한국 주식시장이 AI 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급등했고, 외국인은 커진 비중을 줄이고 있다. 불안의 본질은 국가 체력 훼손이 아니라, 가격 상승 이후 나타나는 수급 정상화다.

외환의 체력도 무너지지 않았다. 6월 말 외환보유액은 4,273.6억 달러(GDP 대비 21.8%)로 전월 대비 3.7억 달러 증가했다. 4월 경상수지는 282.9억 달러 흑자, 상품수지는 338.8억 달러 흑자였다(현재 GDP 대비 1.5%, 1.7%). 수출이 늘고, 경상수지가 쌓이며, 외환보유액이 유지되는 국면을 외환위기라고 부르는 것은 어렵다. 다만 원화 약세는 외국인 매수 재개를 늦춘다. 외국인은 신규 매수보다 환차손 위험을 먼저 계산한다. 외국인 수급은 환율 안정 이후 돌아올 잠재 수요로 봐야 한다.

국민연금 매도도 부담이다. 국민연금은 2026년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14.9%에서 20.8%로



국내외 주식시장 김두연 kimdooun@hanafn.com
주식시장 RA 최욱 wookchoi@hanafn.com

상향했다. 그러나 2 분기 국내주식 급등으로 국민연금 내 국내주식 비중은 28.5%까지 높아졌을 것이다. 기존 목표비중만 적용하면 매도 가능 금액은 138 조원이다. TAA $\pm 2\%p$ 를 반영하면 약 102 조원, SAA $\pm 6\%p$ 를 반영하면 약 30 조원으로 줄어든다. 물론 TAA 와 SAA 를 모두 활용하면 오히려 6 조원 수준의 매수 여지도 생긴다. 핵심은 규모보다 속도다. 시장에서는 월 4 조원 내외의 매도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연금이 강한 매수 주체에서 이탈한 점은 아쉽다. 그러나 시장을 단번에 무너뜨릴 매도 주체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매도는 이어지겠지만, 충격은 관리되는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수급 공백이다. 외국인은 쉬고, 국민연금은 리밸런싱하며, 개인은 심리에 민감하다. 이런 시장에서는 상승은 계단식이고, 하락은 압축적이다. 7 월 초 급락 이후 개인 매수세가 주춤한 것도 이 때문이다. 펀더멘털이 먼저 꺾인 것이 아니라, 가격 충격이 심리를 먼저 흔든 것이다.

SK 하이닉스 ADR 상장은 이 지점에서 의미가 있다(7 월 10 일 전후 예상). ADR 은 단순한 해외 상장이다. 한국 대표 메모리 기업의 가격을 글로벌 투자자가 직접 평가하는 이벤트다. SK 하이닉스는 미국 상장을 통해 최대 294 억 달러 조달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대 2.5%의 신주 발행 가능성이 거론된다. ADR 1 주는 원주 0.1 주의 가치를 갖는다. SK 하이닉스 ADR 상장의 기준가격은 255 만 5,000 원이다(6/23 종가). 이는 확정 공모가가 아니라 수요예측 전 공모 규모와 가격 범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이다. 그럼에도 이 숫자는 국내 투자자에게 중요한 심리적 앵커다. 글로벌 투자자가 한국 대표 메모리 기업을 어느 가격에 받아들일지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금리 우려도 되돌려질 가능성이 높다. 핵심은 유가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 호르무즈 운항 정상화 기대가 공급 불안을 낮추며 Brent 는 71.6 달러, WTI 는 68.6 달러까지 하락했다. 미국 ISM 제조업 가격지불지수도 6 월 73P 로, 5 월 82.1P 에서 9.1%p 낮아졌다. 가격 상승 압력은 남아 있지만, 방향은 둔화다. 금리인상 공포는 물가의 방향이 바뀔 때 약해진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당분간 시장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포워드 가이던스가 줄어들면 시장은 정책 공백을 매파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유가가 내려가고 가격지표가 둔화된다면 금리인상 우려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연준의 말은 모호해질 수 있지만, 물가의 숫자가 낮아지면 시장의 오해도 되돌려진다.

남은 위험은 칩플레이션이다. 메모리 가격 상승은 반도체 기업에는 이익이지만, 고객에게는 비용이다.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면 PC, 스마트폰, 서버 고객의 구매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 지금 시장이 봐야 할 것은 가격 상승 자체가 아니라, 그 비용을 SI 인프라 투자 안에서 흡수할 수 있는지도. 칩플레이션이 실적을 키우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오른다. 그러나 수요를 밀어내는 구간에서는 밸류에이션이 흔들린다.

전략은 단순하다. 수출이 꺾이지 않고, 메모리 가격이 유지되며, 유가가 안정된다면 한국 시장의 조정은 추세 훼손이 아니라 매수 주체가 바뀌는 과정이다. 외국인과 국민연금이 비운 자리를 개인이 모두 채우기는 어렵다. 그래서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과 강세장이 끝났다는 것은 다르다. 공포가 가격을 만들 때, 숫자는 기회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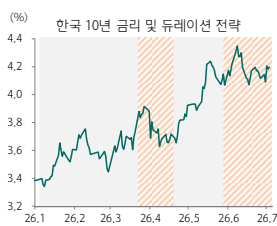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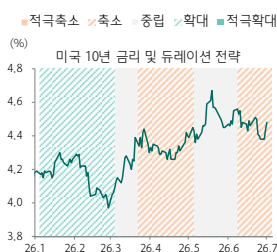
2026년 7월 6일 | Global Macro Strategy

Fixed Income

국채 투자 의견

	축소	중립	확대
미국	■	●	■
한국	■	■	■

주: 6/8 기준. ●는 직전(6/4) 전망



주간 하나채권

[7월 2주] AI 발전이 수요를 자극할 위험

- 유가와 금리/주가의 상관관계수 모두 0에 수렴. 유가가 모든 것을 움직이는 장세는 끝
- 6월 고용 부진으로 금리 하락. 다만 고용 회복 추세 및 금리 상승 전망은 유지
- AI 발전 초기에 수요가 자극될 위험에 주목. 투자는 물론 AI 도입 시 고용도 ‘증가’

Weekly Viewpoint

유가 상승(하락)에 따라 주식과 채권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하락(상승)하는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 유가-금리, 유가-주가 간의 상관관계수가 모두 절대값이 0에 수렴하고, 주가-금리도 강한 음(주가와 채권 가격은 양)의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 [도표 1]. 주식시장의 관심은 AI 관련 이슈(ex.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진출)와 2분기 기업 실적이다. 채권시장도 기대 인플레이션 급락이 말해주듯 유가 하락 요인은 상당 부분 반영됐고, 고용 등 성장 요인 등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다.

하나채권은 유가 하락 추세가 끝나고 고용 회복 추세가 시작되면서 금리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6월 비농업고용이 예상을 하회해 연내 인상 기대가 약화되며 단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하락했다. 그러나 고용이 Breakeven을 상회하고 있고 [도표 3],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이익이 견조하고 [도표 13], ISM 제조업 지표의 고용 지수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점 [도표 5] 등을 고려하면 고용 회복세는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당장은 유가 하락과 고용 회복 추세가 모두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금리도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주는 시선을 조금 돌려서 AI의 경제적 영향 (특히 노동시장)을 짚어봤다. AI가 장기적으로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고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BIS가 생산성 혁신에 따른 폭발적 성장과 수요 병목에 따른 비관 시나리오를 제시한 내용을 참고할 만하다 [p. 14]. 그러나 AI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인식들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1) 데이터와 (2) 정책 당국자의 발언에서 확인되고 있다.

(1) 기업의 투자 확대는 이미 데이터로 확인된다. AI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투자는 각종 장비와 전력기기 등 광범위한 인프라 낙수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판단이 어려운 영역은 노동 시장이다. 이와 관련해 Ramp(기업용 지출 관리 플랫폼)와 Revelio(인력 데이터 분석 기업)이 미국의 2.2만개 기업 대상으로 AI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결론은 AI가 중요한 기업(AI 지출이 큰 기업)일수록 AI 도입 이후 고용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도표 2]. AI 투자 규모가 큰 기업들은 AI를 도입한 이후 도입하지 않은 기업 대비 2년 동안 평균 10.2% 고용 확대 효과가 확인됐다(AI 투자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AI 도입에 따른 고용 증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또한 고용 증가 효과는 도입 직후 곧바로 나타나지 않고 도입 후 6~1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AI의 활용 사례를 찾고

채권 Strategist 박준우, CFA
 junopark@hanafn.com
 해외채권 Analyst 허성우
 deanho@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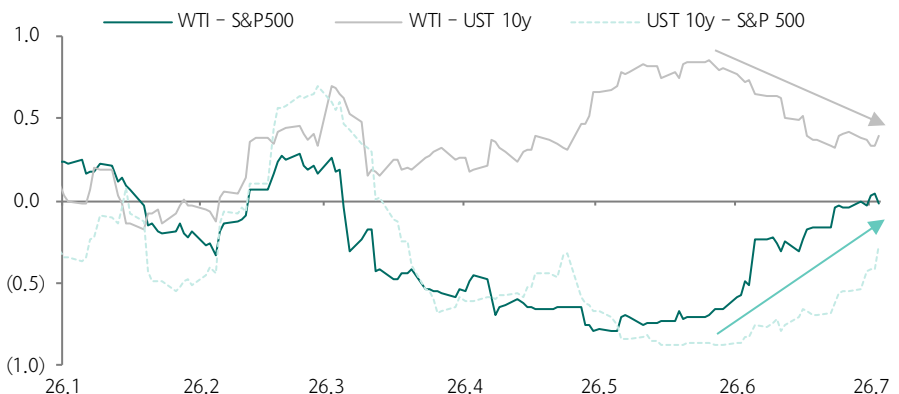
업무에 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일종의 학습 곡선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 기업들이 AI를 공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1~2년은 해고보다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2)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AI 발전 초기에 수요 진작이 먼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경제 주체들이 생산성 향상을 미리 '예상'하고 있다면, 투자와 지출을 선제적으로 늘림으로써 수요를 자극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이후 여러 연준 위원들도 굴스비의 논지에 동의했다. 지난주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AI 인프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로 수요가 여전히 강하며, 가격 상승 압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 평가했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도 AI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다른 요인들이 인플레이션 상방 요인이므로 적절한 수준의 긴축 정책이 합리적이라고 발언했다. 지난주 케빈 위시도 ECB의 신트라 중앙은행 포럼에서 AI 투자가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을 인정하기도 했다(물론 장기적으로 생산성 혁신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가능성에도 활짝 열려 있음).

결론적으로 채권시장은 AI의 디스인플레이션 효과와 이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보다는 '단기적으로' 수요 진작 효과가 만들어낼 성장세와 기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반영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10년 금리 4.50~4.75% 레인지로 상승 예상).

도표 1. 유가, 금리, 주가의 상관계수 추이 (20일 rolling). 이제는 각자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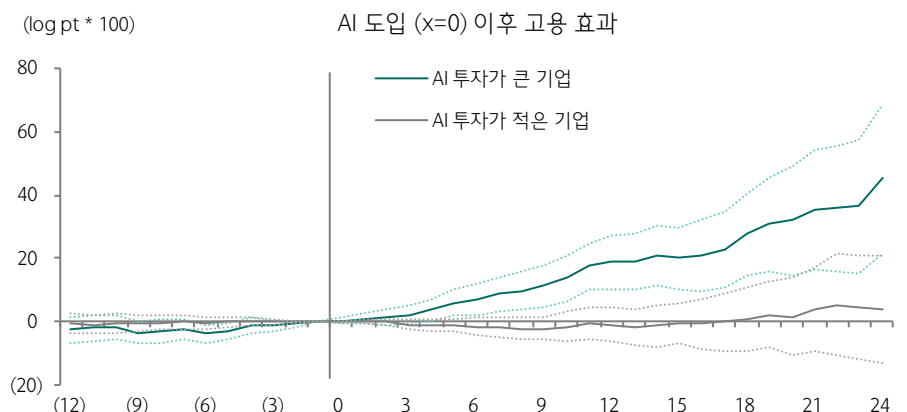
5월 중순 유가가 정점에서 내려오는 시기부터 '유가와 금리', '유가와 주가', '금리와 주가' 간의 상관계수가 0으로 수렴



자료: LSEG, 하나증권

도표 2. 기업의 AI 도입 이후 고용 효과. AI 투자가 큰 기업 중 AI 도입한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 대비 24개월에 걸쳐 고용 규모가 0.452 log pt (= 57%)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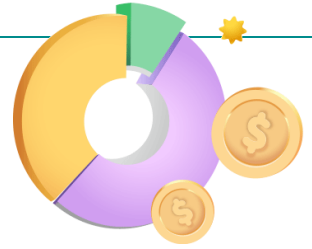
AI 투자가 큰 기업과 적은 기업을 그룹화한 이후, 그 그룹 내에서 AI 도입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를 분석



주: x축은 개월 수. y축의 로그 차이에 100을 곱한 값은 % 변화율과 유사
자료: Ramp, Revelio Labs

ETF Weekly Letter

HANA Global Weekly | 2026.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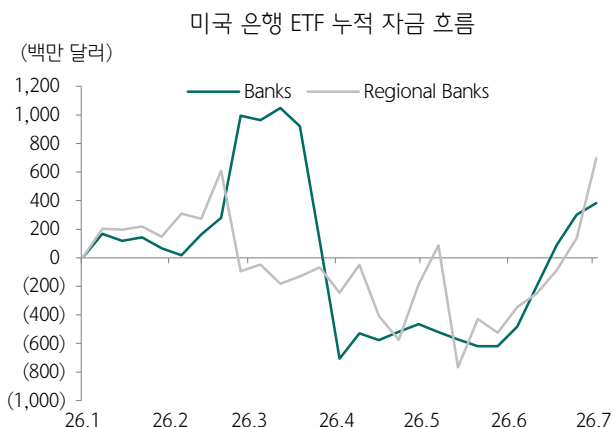
Global ETF 장치영 chiyoung.jang@hanafn.com

시가 잠든 사이에

순환매 속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금융 테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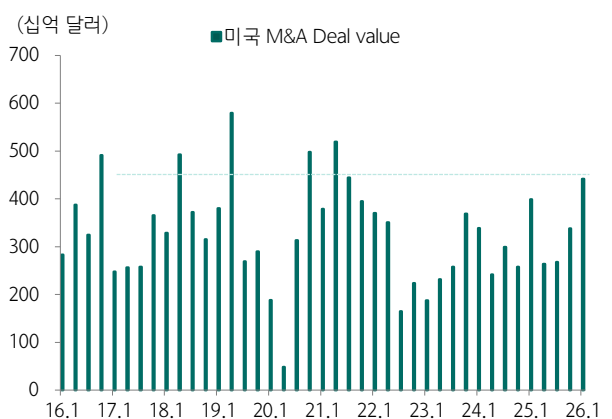
- AI 프리미엄 재점검:** 지난주 미 증시는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 마감. Meta의 데이터센터 임대 사업 진출 소식이 AI Capex 부담 우려를 자극했고, AI 반도체 테마는 낙폭을 확대하며 주요 테마 내에서 가장 부진한 모습(SMH -3.2%, BAI -4.3%). AI 인프라 쓸림에 대한 피로감을 반영하며 모멘텀 팩터(MTUM -2.8%)도 동반 하락. 성장주 내에서는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며 소프트웨어(IGV +6.1%), 사이버보안(CIBR +6.2%), 바이오(XBI +3.3%) 테마 등이 강세 시현. 업종별로는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금융 업종(XLF +3.8%)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
- 그럼에도 반도체?** 자산군별 ETF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 ETF는 주간 기준 4월 이후 처음으로 자금이 유출. 반면 원자재로는 미국 6월 고용지표 발표 이후 연준의 긴축 우려 완화되며 자금 유입 전환. 다만 테마 관점에서는 반도체 테마에 대한 선호 심리는 여전한 모습. 미국과 국내 모두 반도체 관련 ETF로 자금 유입 흐름 뚜렷. 한편 금융 섹터 강세와 맞물려 은행 관련 테마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는 가운데, 특히 지역은행 테마에서 이번 주 가장 높은 유입 강도 관찰.
- Idea? AI 간접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형은행** 지난 3월 매크로 불확실성 확대로 대규모 자금이 유출되었던 은행 관련 ETF에 6월 이후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는 흐름이 관찰되고 있음. AI 밸류체인 확장에 따른 대규모 IPO와 M&A 활성화가 대형 IB 실적 기대감을 높이고 있으며, 주식시장 랠리에 따른 트레이딩 부문 실적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실제로 1Q26 미국 M&A 거래액은 2021년 이후 최대 수준까지 회복했고, Goldman Sachs의 1분기 실적 발표에서 IB 부문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 이에 더해 미국 대형은행 32곳은 지난 6월 24일 미 연준 스트레스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며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도 해소. 최근 높아진 증시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관련 ETF를 살펴볼 만한 시점이라는 판단. 관련 ETF로는 지역은행보다는 대형은행 비중이 높은 KBWB에 관심. KBWB는 미국 대형 상업은행 및 투자은행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Morgan Stanley, Goldman Sachs, Bank of America, JPMorgan Chase 등 상위 5개 종목이 약 40% 비중을 차지.

'26년 6월 이후 미국 은행 관련 ETF로 자금 유입되는 모습



자료: Factset, 하나증권

1Q26 미국 M&A 규모: '21년 수준까지 회복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2026년 7월 7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BUY (유지)

목표주가(12M) 166,000원(상향)
현재주가(7.6) 124,8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8,051.33
52주 최고/최저(원)	132,000/81,200
시가총액(십억원)	34,241.1
시가총액비중(%)	0.52
발행주식수(천주)	274,367.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895.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08.2
외국인지분율(%)	68.44
주요주주 지분율(%)	
국민연금공단	8.80
The Capital Group Companies, Inc. 외 31 인	6.72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N/A	N/A
영업이익(십억원)	6,032	6,309
순이익(십억원)	4,482	4,679
EPS(원)	16,056	16,866
BPS(원)	175,889	184,970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총영업이익	10,687	11,377	12,014	12,722
세전이익	5,052	5,459	5,941	6,241
지배순이익	3,739	4,003	4,347	4,555
EPS	13,131	14,589	16,044	16,810
(중감율)	12.2	11.1	10.0	4.8
수정BPS	151,063	164,427	181,311	198,121
DPS	3,600	4,105	4,600	4,930
PER	4.3	6.5	7.8	7.4
PBR	0.38	0.58	0.69	0.63
ROE	9.1	9.2	9.3	9.0
ROA	0.6	0.6	0.6	0.7
배당수익률	6.3	4.3	3.7	4.0



Analyst 최정욱,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하나금융 (086790)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은행 중 가장 높은 NIM 상승 예상

높은 대출성장률과 NIM 추가 상승 등에 따라 그룹 이자이익 증가 폭 큰폭 확대 전망

하나금융에 대한 투자이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66,000원으로 상향한다. 목표가 상향은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소폭 상회함에 따른 이익추정치 상향에 기인한다. 2분기 추정 순익은 1조 2,820억원으로 QoQ 5.9% 증가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 1) 2분기 은행 원화대출 성장률이 1.5%에 달해 대형은행지주사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고, 2) NIM은 QoQ 5bp 추가 상승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은행 중 가장 높은 상승세가 예상되면서 그룹 순이자이익이 YoY 16.7%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3) WM 영업 활성화에 힘입어 증권 브로커리지수수료도 QoQ 30% 가까이 증가해 그룹 수수료이익 증가 추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4) 2분기 그룹 대손비용은 3,500억원으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앙그룹 관련 추가 충당금 500억원 적립과 기업 신용위험 재평가 영향 때문이다. 다만 경상 충당금은 경상 수준인 3,000억원 내외로 전망한다. 5)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환산손실 발생이 예상되지만 채권평가손실 축소와 홍콩 ELS 과징금 환입으로 인해 기타비자/영업외이익도 QoQ 다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분히 보수적인 기준으로도 올해 연간 추정 순익은 약 4.35조원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CET 1 비율 소폭 하락 예상. 하반기 자사주 매입 규모는 최소 5,000억원 이상 추정

1분기 실적 발표시 13.09%로 발표되었던 그룹 CET 1 비율은 구조적 외환포지션 해외장기 지분투자 확대 영향 +12bp 등으로 최종적으로 13.23%로 수정된 상황이다. 2분기 중 원/달러 환율이 30원 가량 추가 상승해 5~6bp 내외의 하락 요인이 발생한다. 2분기 대출성장률이 소폭 높아진데 따른 RWA 증가분과 분기배당 및 자사주 매입, 두나무 지분 투자 영향 등을 감안해도 당기 순익 효과로 인해 2분기 CET 1 비율은 13.2%로 소폭 하락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만약 손실사건 운영리스크 적용기간 축소 승인과 이에 따른 예상 영향인 +15bp가 반영된다면 13.3%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상반기 자사주 매입 규모는 1~2분기 2,000억원씩, 총 4,000억원이었는데 2026년 총주주환원을 목표인 5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실시할 자사주 규모는 최소 5,000억원 이상이 될 공산이 크다

두나무 지분 투자는 긍정적인 요인. 밸류업 업그레이드 방안 발표도 모멘텀 작용 기대

지난 5월 두나무 지분 투자(1조 33억원 투자, 6.55% 취득)는 당장의 무수익자산 증가와 CET 1 비율 하락 영향(-11bp) 우려로 주가에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활성화 관련 잠재력과 업비트/네이버파이낸셜과의 협업을 통한 비즈니스 확장 측면에서 결국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2분기 실적 발표시 공시 예정인 밸류업 업그레이드 방안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다. 경쟁은행 지주사에 비해 비은행 이익 확대 폭은 다소 적겠지만 NIM 등 은행 이익력이 확고하게 개선 중이고, 추가 모멘텀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2026년 07월 07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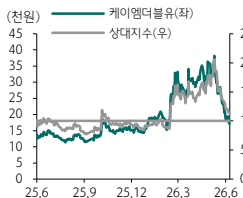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70,000원
현재주가(7.06) 16,24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847.07
52주 최고/최저(원)	38,200/11,430
시가총액(십억원)	685.1
시가총액비중(%)	0.15
발행주식수(천주)	42,191.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626.9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9.2
외국인지분율(%)	7.62
주요주주 지분율(%)	
김덕용 외 1인	30.43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50.7	390.6
영업이익(십억원)	1.6	111.9
순이익(십억원)	2.0	114.7
EPS(원)	48	2,719
BPS(원)	3,470	6,188

Stock Price**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87.4	97.5	150.7	390.6
영업이익	(45.5)	(23.8)	1.6	111.9
세전이익	(37.4)	(30.4)	2.0	114.7
순이익	(38.6)	(27.0)	2.0	114.7
EPS	(969)	(672)	47	2,719
증감율	적지	적지	흑전	5,685.11
PER	(9.06)	(21.43)	365.11	6.31
PBR	2.43	4.48	4.94	2.77
EV/EBITDA	(11.15)	(43.91)	78.36	5.97
ROE	(24.24)	(19.66)	1.43	56.29
BPS	3,607	3,211	3,471	6,189
DPS	0	0	0	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케이엠더블유 (032500)**C밴드 경매 최대 수혜주, 버라이즌에서 큰 수혜 볼 것****매수/목표가 7만원 유지, 데이터센터와는 무관한 데 과도한 주가 하락 기록**

KMW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12개월 목표주가 70,000원을 유지한다. 추천 사유는 1) 미국에서 AWS-3 밴드가 성황리에 낙찰된데 이어 어퍼 C밴드 경매가 빠르면 2026년 말 이루어질 전망이다 신규 주파수 할당에 따른 2027년 미국 시장 대호황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고, 2) 미국 AT&T와 더불어 버라이즌의 신규 주파수 확보 및 네트워크 투자 계획이 적극적이라 KMW에게 큰 기회가 올 전망이다, 3) 데이터센터와는 사실상 무관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국내 광통신 관련주 급락이 KMW의 주가 동반 급락을 일으켜 가격 메리트가 높아졌고, 4) 2027~2028년 이론상 달성 가능한 KMW 최대 매출액과 과거 해외 통신장비 업종 Multiple 수준을 감안하면 7천억원에 불과한 현 KMW의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낮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현재 목표주가와 주가 간 괴리가 큰 상황이지만 2027년 업황 개선을 감안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가라고 판단하여 기존 12개월 목표주가 7만원을 유지한다.

AWS-3에 이어 어퍼C밴드까지 미국 주파수 경매 순항 중, 최대 수혜주 될 것

2026년 6월 진행된 미국 AWS3밴드 65MHz가 총 35억달러(5.4조원)에 낙찰된 상황에서 미국 버라이즌이 이중 88%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을 통해 미국 버라이즌 진출을 타진하는 KMW 입장에서 호재라고 볼 수 있겠다. 비록 저주파수이긴 하지만 신규 투자 발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FCC가 7/22일 전체 회의에서 미국 어퍼 C밴드 160MHz 경매 여부를 결정할 것인 점도 큰 호재이다. 구성 멤버로 보면 사실상 가결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미국 AWS 3 밴드 경매는 2026~2029년 총 800MHz에 달하는 대규모 주파수 할당에 달하는 시작에 불과하며 본 게임은 어퍼 C밴드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빠르면 올해 연말 미국에서 대규모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버라이즌/AT&T의 대규모 CAPEX 집행이 예상된다. 사실상 삼성전자의 버라이즌 RU 부분을 맡게 될 KMW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인 판단이다.

삼성 버라이즌 내 M/S 높게 유지될 것, KMW 미국에서 큰 수혜 볼 전망

2020년 8조원에 달하는 MOU 체결에도 불구하고 실제 삼성의 버라이즌향 5G 통신장비 매출액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주파수 문제로 5G 도입 초기 물량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7년 이후 버라이즌 내 삼성 M/S는 40%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고 삼성 내 KMW 비중도 크게 상승할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장비/부품 규제가 심하기 때문이다. 이전 삼성의 첫번째 벤더는 물론이고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AI RAN 구축을 위한 신규 주파수 투자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최근 코스닥 폭락 기회를 KMW 매수 기회로 삼을 것을 권한다.

2026년 07월 07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BUY (유지)

목표주가(12M) 140,000원
현재주가(07.06) 116,3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8,051.33
52주 최고/최저(원)	117,800/61,100
시가총액(십억원)	2,745.3
시가총액비중(%)	0.04
발행주식수(천주)	23,605.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81.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6.3
외국인지분율(%)	38.65
주요주주 지분율(%)	
한국콜마홀딩스 외 23 인	26.58
국민연금공단	12.80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3,055.1	3,354.2
영업이익(십억원)	309.9	356.8
순이익(십억원)	221.8	259.6
EPS(원)	7,259	8,619
BPS(원)	44,833	52,504

Stock Price



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2,452.1	2,722.4	3,045.5	3,390.1
영업이익	193.9	239.6	304.1	354.4
세전이익	139.8	211.7	280.4	335.4
순이익	90.1	125.1	169.3	208.9
EPS	3,830	5,299	7,172	8,850
증감율	1,587.22	38.36	35.35	23.40
PER	14.39	11.72	16.42	13.31
PBR	1.64	1.61	2.63	2.23
EV/EBITDA	10.34	9.13	8.81	7.46
ROE	12.50	14.69	17.19	18.11
BPS	33,579	38,566	44,874	52,860
DPS	720	864	864	864



Analyst 박중대 forsword@hanafn.com
RA 양정석 jsyang@hanafn.com

한국콜마 (161890)

계속 올라가는 실적 전망

2분기 영업이익 944억원(YoY 28%) 추정

2분기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14%, 28% 성장한 8,315억원과 944억 원 수준으로 추정한다. 국내 사업이 YoY 25% 성장하면서 실적 개선을 견인할 전망이다. 전년도 높은 베이스를 감안하면 상당한 호실적이다. 북미 사업 적자(OP -43억원 추정)는 아쉬움이 있지만, 중국 사업 안정화(매출 YoY 15%)와 연우의 흑자전환(OP 21억원 추정)가능성은 긍정적이다. 연우는 중동전쟁으로 용기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플라스틱 재고를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이 수주에 도움이 되었다. 빅2 기업 매출 비중이 11%까지 하락했고, 인디 브랜드 비중이 50%를 넘었다.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 중

자외선차단제는 2분기 성수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반기 성장률도 떨어지지 않을 듯하다. 자외선차단제 수출의 90%가 유럽을 향하고 있는데, 신규 지역/채널 진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외 다른 기초 제품들 매출 호조로 하반기 성장률은 예상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 아누아/닥터엘시아 등 주요 인디 브랜드 업체들 히어로 제품 매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외선차단제와 수익성 차이도 많이 줄었다. 하반기 수익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체적인 수주 잔량은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큰 상태다. 조업일수가 2분기 대비 3분기가 5일 정도 줄어드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납품할 수 있을지 관건이다. 가동률은 90%를 넘는 상태, 아웃소싱과 자동화 설비교체, 초과근무 등으로 가동률을 100% 이상으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생산캐파는 계속 늘리고 있다. 세종공장이 2027년 7월 준공이 예정돼 있다. 아울러, 글로벌 R사의 크림 제품 재발주 여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1분기 초도 매출이 발생했는데, 소비자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재발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ODM 기업에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의 고가 기초 제품을 만든 것은 처음이다. i) 단기적인 실적은 물론 ii) 글로벌 ODM 기업으로 지위가 한단계 상승하면서, iii) 고가 기초 카테고리까지 ODM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다. 이미 글로벌 R사와 라인업 확장에 들어갔으며, L사와 신제품 협의가 오가고 있다.

목표주가 11->14만원 상향 조정, 아직 갈 길이 멀다

2026년 한국 화장품 산업은 YoY 25% 이상 수출이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글로벌 모멘텀을 향유하고 있다. 특히, 유럽/미국 수출을 기초 카테고리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콜마의 실적은 예상을 웃도는 모습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실적 추정치 및 적정 밸류에이션 상향 조정으로 목표주가를 11만원에서 14만원으로 올린다. 15만원은 12MF PER 17배를 적용한 수치이다. 그동안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적인 이슈로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낮아진 상황이다. 실적 전망치는 올라가고, 밸류에이션은 정상화되는 국면에 있다.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2026년 7월 7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BUY (유지)

목표주가(12M) 200,000원(상향)
현재주가(7.06) 116,9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8,051.33
52주 최고/최저(원)	141,300/57,800
시가총액(십억원)	13,160.9
시가총액비중(%)	0.20
발행주식수(천주)	112,582.8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459.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52.5
외국인지분율(%)	79.65
주요주주 지분율(%)	
Aramco Overseas Company BV 외 5인	63.43
국민연금공단	9.35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42,075.0	38,978.4
영업이익(십억원)	3,456.0	2,396.1
순이익(십억원)	2,436.1	1,753.7
EPS(원)	20,892	15,040
BPS(원)	95,401	107,741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36,637.0	34,247.0	39,711.8	41,733.8
영업이익	422.2	235.6	3,780.9	3,646.5
세전이익	(332.5)	173.2	3,239.9	3,427.5
순이익	(193.0)	177.0	2,462.3	2,604.9
EPS	(1,656)	1,518	21,117	22,340
증감율	적전	흑전	1,291.11	5.79
PER	(33.09)	54.68	5.54	5.23
PBR	0.73	1.09	1.21	1.03
EV/EBITDA	10.50	14.96	3.39	2.98
ROE	(2.18)	2.01	24.45	21.26
BPS	74,590	76,234	96,513	113,652
DPS	125	330	4,200	9,000



Analyst 윤재성 js.yoon@hanafn.com
RA 김형준 do200508@hanafn.com

S-Oil (010950)**OSP 8월부터 마이너스 전환. 확신의 매수 구간****2Q26 영업이익 컨센 13% 상회 전망**

2Q26 영업이익은 1.02조원(QoQ -17%, YoY 흑전)으로 컨센(0.9조원)을 13% 가량 상회할 전망이다. 정유의 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윤활기유가 판가 급등으로 대폭 개선된 덕이다. 정유 영업 이익은 4,899억원(QoQ -53%)을 추정한다. 전분기 발생한 재고관련이익(약 5천억원)이 제거되며 전분기 대비 감익은 불가피하나, 6월 말 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높은 OSP가 반영되며 재고관련손실 금액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내수 가격 상한제에 따른 내수 적자에도 불구하고, 4~5월 수출 마진 호황도 실적 선방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활기유 영업이익은 5,260억원(QoQ +216%)을 추정한다. 카타르 Pearl GTL 일부 설비의 차질이 1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한국 수출 판가가 2배 가량 급등한 덕이다.

3Q26 영업이익 QoQ -52% 감익 전망. 다만, 이는 래깅 효과에 불과

3Q26 영업이익은 4,922억원(QoQ -52%, YoY +115%)을 추정한다. 현재 컨센(6,067억원)을 19% 하회할 전망이다. 특히, 정유 영업이익은 821억원(QoQ -83%)으로 대폭 축소된다. 다만, 이는 6월 말 급락한 유가 관련 부정적 효과가 이어지며 반영되는 일종의 래깅효과이기에 걱정할 것은 없다. 2Q26 말 보유한 원유 재고는 높은 OSP가 반영되어 약 100\$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3Q26에는 낮아진 유가+OSP가 반영되기에 재고관련손실은 이번 분기 뒀이다. 높은 원가가 투입되는 역래깅 효과도 7월에 극단적으로 반영된다. 다만, 7월을 넘기고 나면 8월부터는 현재의 낮아진 유가+OSP가 투입되기에 Spot 정제마진 호조 감안 시 재차 높은 이익 창출이 가능해진다. 윤활기유 영업이익은 3,946억원(QoQ -25%)을 추정한다. 판가와 실적 조정은 나타나나, 타이트한 글로벌 수급 환경을 감안 시 과거 대비 높은 수준에서 유지 가능할 전망이다.

OSP 마이너스는 구조적 원가 절감효과를 의미. 호실적과 배당 매력 부각될 것

BUY를 유지하고, TP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제마진 강세와 8월 OSP 마이너스 전환에 따른 원가 절감효과에 근거해 2026~27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3.78조원/3.65조원으로 25~40% 상향했고, Capex 종료를 반영해 배당 추정치도 상향했다. TP는 2026~27년 평균 BPS 약 10만원에 Target PBR 2배를 적용했다. 1) 2018~19년 Up-Cycle 당시보다 높은 정제마진 2) Dubai의 WTI 대비 약세 진행과 OSP 마이너스 전환에 따른 구조적 원가 절감 효과 3) 유가 약세에 따른 사린 P의 본격적인 이익 기여 4) 윤활기유 호실적 5) 배당 매력 상승 등을 감안했다. 참고로, 2018~19년 당시에 기록한 고점 Valuation은 12M Fwd PBR 2.5배였고 2026~27년 ROE가 21~25%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Target Multiple은 적정 수준이다. 2025년 말 6조원에 달했던 순차입금이 2026~27년 대폭 축소되고 투자 사이클이 종료되며 배당 성향도 상향될 전망이다. 2026~27년 DPS는 각각 4,200원(배당성향 20% 가정)/9,000원(40% 가정)으로 배당수익률은 3.6%/7.7%가 가능하다. 사우디 아람코의 8월 OSP(Arab Light)가 MoM -11\$/bbl 인하된 -1.5\$/bbl을 기록하며 구조적 변화가 시작되었다. 다시 확신의 매수 구간이 왔다.

2026년 7월 7일 | 기업분석_Preview

BUY(유지)

목표주가(12M) 240,000원(상향)
현재주가(7.06) 193,3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8,051.33
52주 최고/최저(원)	362,000/145,900
시가총액(십억원)	14,957.1
시가총액비중(%)	0.23
발행주식수(천주)	77,377.8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682.2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56.1
외국인지분율(%)	18.07
주요주주 지분율(%)	
삼성전자 외 10인	48.91
국민연금공단	8.70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4,209.7	14,950.4
영업이익(십억원)	830.9	1,062.3
순이익(십억원)	716.4	883.1
EPS(원)	9,127	11,215
BPS(원)	135,071	143,354

Stock Price



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3,828.2	13,929.9	14,287.1	14,948.6
영업이익	911.1	957.1	840.8	1,084.5
세전이익	1,102.8	1,075.8	1,001.5	1,246.7
순이익	757.0	759.5	717.3	891.3
EPS	9,783	9,816	9,270	11,519
증감율	9.16	0.34	(5.56)	24.26
PER	13.06	17.47	21.08	16.96
PBR	1.06	1.34	1.43	1.35
EV/EBITDA	3.44	5.07	6.46	5.81
ROE	8.42	7.89	7.01	8.20
BPS	120,638	128,172	136,295	144,625
DPS	2,900	3,190	3,190	3,190



Analyst 이준호 junholee95@hanafn.com

삼성에스디에스 (018260)

하반기로 갈수록 좋다

2Q26 Pre: 컨센서스 부합 전망

삼성에스디에스는 2분기 매출액 3조 6,097억원(+2.8%YoY, +7.7%QoQ), 영업이익 2,296억원(-0.2%YoY, +193.1%QoQ. OPM 6.4%)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이다. 2분기 IT 서비스 부문 매출액은 1조 7,120억원(+2.0%YoY, +6.3%QoQ)으로 추정한다. 클라우드 매출 7,580억원(+14.0%YoY, +9.7%QoQ) 내 CSP는 3,085억원(+16.6%YoY, +3.4%QoQ), MSP는 3,360억원(+13.0%YoY, +3.4%QoQ)으로 예상한다. 1분기 성장률이 소폭 둔화되었으나 2분기 캡티브, 공공 부문 모두에서 안정적인 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2분기 물류 부문 매출액은 1조 8,978억원(+3.5%YoY, +8.9%QoQ)으로 추정한다. 지형학적 이슈에 따른 유류할증료 증가를 고객사에 전가한 영향이다.

하반기, 기대해도 좋다

2026년 매출액 14조 2,871억원(+2.6%YoY), 영업이익 8,408억원(-12.2%YoY, OPM 5.9%)을 기록할 전망이다. 1분기 퇴직금 관련 일회성 비용과 물류 부문의 수익성 부진이 다소 아쉽지만 상반기 대비 하반기는 호실적이 기대된다. 클라우드 매출액은 3조 614억원(+14.0%YoY)로 추정한다. B300 GPUaaS가 시작됐으며 하반기 공공형 생성형AI 사업의 매출을 본격적으로 인식할 예정이다. 6월부터 그룹사 전반의 생성형AI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패브릭스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LLM 모델 수요에 대응하고 있기에 GPU 사용량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실적 호조에 따른 IT 인프라 투자 확대는 추가 업사이드 요인이다.

투자 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240,000원으로 상향

삼성에스디에스의 투자 의견 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240,000원으로 상향한다. 6월 초 큰 폭의 주가 등락을 겪었으나 실적은 상저하고가 분명하며, AI DC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기에 하반기 다시금 기대를 가져도 좋다고 판단한다. 삼성에스디에스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동탄 DC 서관 20MW를 포함하여 2028년까지 구미 60MW, 한국 AI CC 40MW 까지 총 120MW의 AI DC를 확보할 계획이다. 글로벌 GPU 단가에 근거하여 추정 시 연간 2조원 이상의 매출 기여를 예상한다. 해당 DC의 일정 부분 이상은 캡티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용량이기에 사실상 수요가 확정되어 있는 공급이다. 최근 엔트로픽, 오픈AI를 포함한 빅테크들의 글로벌 리전 확보 움직임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글로벌 사업자들이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는 안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DC를 서비스한 레퍼런스다. 국내에서 삼성에스디에스의 풀스택 AI 서비스 경쟁력은 높다고 평가하며, 글로벌향 수주를 통한 AI DC 구축 계획의 확대를 기대한다.

2026년 7월 7일 | 산업분석_Update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7월 06일

썬리드(050890)

BUY | TP 30,000원 | CP 10,250원

알에프에이치아이씨(218410)

BUY | TP 150,000원 | CP 57,900원

LIG아큐버(073490)

BUY | TP 80,000원 | CP 24,950원

케이엠더블유(032500)

BUY | TP 50,000원 | CP 16,240원

아이씨티케이(456010)

BUY | TP 40,000원 | CP 16,770원

우리넷(115440)

BUY | TP 25,000원 | CP 7,260원

RF머트리얼즈(327260)

BUY | TP 150,000원 | CP 47,300원

오이솔루션(138080)

BUY | TP 60,000원 | CP 22,100원

유비쿼스(264450)

BUY | TP 22,000원 | CP 9,970원

에치에프알(230240)

BUY | TP 50,000원 | CP 17,340원

세나테크놀로지(061090)

BUY | TP 70,000원 | CP 36,800원



Analyst 김용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통신 장비

본게임은 어퍼 C 밴드 아닌가요?

AWS-3 경매 종료, 버라이즌이 황금 대역폭 확보하게 될 것

미국 AWS-3 주파수 경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전체 입찰금액 35억 달러 중 버라이즌이 31억 달러를 차지하며 주파수 대부분을 확보했다. 그런데 이번 경매에서 AT&T와 T-Mobile의 참여가 미온적이었던 탓에 다가올 신규 경매 흥행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투자가들도 있다. 하지만 미국 통신사별 주파수 보유 현황을 보자면 이번 재경매 주파수는 버라이즌이 독점하는 것이 당연했다. 로우C밴드(3.7GHz)는 각 통신사들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보유한 한편, AT&T의 전국망은 700MHz와 3.45GHz 대역이고, T Mobile은 600MHz 및 EBS대역(2.5GHz)에서 주요 커버리지를 확보 중이다. 이번 AWS-3의 인접 주파수는 AWS 대역인데, 이 대역은 버라이즌이 전국망을 보유 중이어서 이번 경매의 최대 수혜자는 버라이즌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버라이즌은 작년 하반기 에코스타의 미회수 AWS-3 대역 매입 의사를 보였는데, 기존 AWS에 AWS-3 대역을 온전히 결합하면 버라이즌은 단독으로 70MHz에 달하는 황금 대역폭을 확보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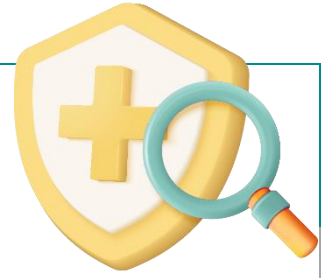
버라이즌 CAPEX 증액 전망, 삼성전자와 국내 벤더사에 수혜로 작용할 것

결국 이번 AWS-3 경매를 통해 버라이즌의 망 투자 의지는 사실상 확인된 것으로 판단한다. 버라이즌은 가입자 및 이동전화매출액 성장 둔화가 두드러지는데, 아무래도 타사대비 로우 미드 대역폭이 부족한데 기인한 망 품질 저하가 주요 원인이겠다. 기존 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추가 대역폭이 필요하다지만, 통신사 입장에서선 어퍼 C 밴드와 신규 대역폭은 새롭게 출시될 5G SA/6G 요금제 및 피지컬 AI에 할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AWS 대역에서 기존 서비스 퀄리티 제고를 꾀하고, 어퍼C밴드에서 신규 매출을 노리는 투트랙 전략인 셈이다. AT&T도 작년 에코스타로부터 주력 대역인 600MHz와 3.45GHz를 인수한 후 올해 3월 CAPEX 확대를 발표했는데, 이렇게 보면 기존 서비스를 위해 31억 달러를 지출한 버라이즌이 향후 요금제 인상과 직결될 신규 경매에 소홀할 수는 없겠다. 조만간 버라이즌 CAPEX 증액이 현실화되면 삼성전자와 국내 벤더사에 큰 수혜로 작용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과거 버라이즌 AWS향 RRH 물량의 50%를 공급한 레퍼런스가 있는 KMW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7월 중으로 어퍼 C 밴드 경매 계획 수립 예정, 지금이 장비주 매수할 기회

실제로 AWS-3 경매가 끝난 후 미국 통신사들이 향후 60일 이내 어퍼 C 밴드 경매 일정을 구체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직후 FCC에선 어퍼 C 밴드 경매 여부를 7/22일에 결정하기로 발표했다. 참고로 경매 대상 어퍼 C밴드 용량이 OBBBA 최초 발의 당시에는 100MHz였던 반면 이번에는 160MHz까지 증가했다. 4.2~4.4GHz 항공 주파수와의 간섭 방지를 위한 버퍼 대역을 제외하면 타 업계의 이해관계 상충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모든 용량을 경매에 내놓겠다 의미이다. 미국 정부와 통신사의 주파수 투자 의지가 재차 확인된 것이고, 올해말~내년초 이후 대규모 미국향 무선 장비 수출이 더 가시화됐다. 7월 중에 KMW, RFHIC, HFR 매수할 것을 추천한다.

하나 Biweekly 제약/바이오 (7월 초)



제약바이오 Biweekly | 2026년 7월 7일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른 전망

1) 2026년 7월 제약/바이오 산업 P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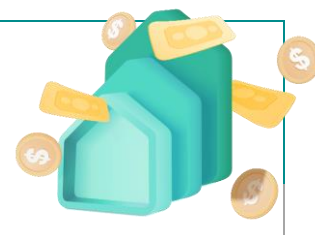
- 4분기를 기다리며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른 종목 차등화에 대비할 때** 코스닥 승강제는 약 1,800개의 기업들을 프리미엄/스탠다드/관리군으로 나누어, 외국인 및 기관과 같은 주요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인 선정 조건을 이르면 9~10월에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3Q는 전통적으로 글로벌 빅파마들의 기술이전 수가 가장 적은 시기이자, 주요 학회 이벤트도 부재하여 회사들의 개발 현황 업데이트도 확인하기 어렵다. 지난 Biweekly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는 10월 ESMO(유럽종양학회)를 주목하고 있고, LBA 수령 사전 통보일인 9월 16일-18일부터 주가 상승 이벤트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4Q는 기술이전과 학회 이벤트가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주요 섹터의 상승률이 둔해지면, 베타가 크면서 올해 YTD 수익률이 하위권이었던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 코스닥 세그먼트 종목 또는 액티브 펀드 추천** 코스닥 승강제 이전에 '22년부터 시행된 세그먼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구분되는 선정 기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그먼트의 주요 조건은 임상 1상 이상 복수 후보물질 보유하면서, "1) 10사업연도 이내 신약 허가, 2) 2사업연도 이내 L/O 실적 및 L/O 관련 매출액 합계 100억원 (글로벌 Top20 제약사인 경우 100억원 미만도 인정), 3) 3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300억원 이상 및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조건 중 1개를 만족하는 것이다. 여기에 네거티브 조건(ex. 특정 기간 내 벌점, 주가 하락폭, 공매도 비중 등)을 부여하고(단기 급등 종목 배제), L/O 기준을 높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기할 것으로 전망한다. 신규상장 기업이지만 뛰어난 기술역량을 갖춰 주목받는 기업을 곧바로 프리미엄 군에 편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 하니, 시장의 관심을 받는 공모주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 인제니아테라퓨틱스 - MSD에 L/O한 글로벌 3상 중인 파이프라인 보유, 7/20부터 수요예측). 투자 기회는 스탠다드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승강제 시행 시점에 프리미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연말이나 1H27 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그 기대감으로 리밸런싱 시점에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은 프리미엄>스탠다드 이면서, 시가총액이 큰 순서대로 비중을 조절해 두어야 한다. IT/반도체 섹터에서 수익화한 자금이 코스닥 바이오텍을 매수할 때, 시가총액과 거래금액에 따른 주가 변동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코스닥 세그먼트 기준에 따른 편입 종목은 동국제약,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에스티팜, 에이비엘바이오, 올릭스, HK이노엔이다. 이 종목은 프리미엄 종목으로 그대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종목별로 매수하기 적절한 시기가 다르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른 수혜 종목에만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별 거래 보다 액티브 방식으로 운영되는 바이오 펀드나 ETF에 접근하는 것도 추천한다.

2) 2026년 7월 추천 종목

- 7월 코스피 Top pick: 한미약품** “소네페글루타이드”의 Lilly양 L/O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에피노페그듀타이드의 반환 우려가 있더라도 이미 하락폭이 과도하여(6/1 이후 시총 약 1.5조원 하락), 이벤트 발생시 약재 해소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음. 추가 L/O가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높고, 수급 회복시 성과를 보인 기업을 먼저 주목할 수 밖에 없음.
- 7월 코스닥 Top pick: 알테오젠, 올릭스, 리가켄바이오(추가)** 1) 알테오젠은 8/4 MSD 실적 발표에서 Qlex의 매출 성장세 확인(WAC과 처방 수 성장세가 모두 관찰됨), 여름 휴가 시즌 앞두고 7월 내 L/O 나올 가능성 높음. 2) 올릭스는 7/14 R&D 데이를 통해 ALK7 비만원숭이 데이터, 탈모치료제 개발 현황(상반기 투여 종료 추정), 한소제약과의 협업 현황 등을 업데이트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 높다. 3) 리가켄바이오는 7/8 R&D 데이를 개최하는데, 국민성장펀드의 5천억 투자를 받은 배경을 통해 하반기 이벤트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Bio-USA에서 J&J는 일부 고형암에 관심이 있음을 언급하였는데, LCB84는 J&J와 P1/2를 진행 중이고 3Q 내 일부 고형암에 대해 2상 부분으로 넘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GW급 AI 데이터센터 수혜

건설 Weekly | 2026.7.7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주간 동향 및 이슈

주간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수익률은 건설업이 코스피 대비 11.8%p 상회했다. 지난 주 수급은 기관과 연기금, 외인이 모두 매수했다. 기관은 삼성물산을 매도, 삼성E&A, 현대건설, GS건설을 매수한 반면, 외인은 삼성E&A를 매도, 삼성물산을 매수했다. 코스피가 하락한 가운데, 건설주는 크게 3대 메가프로젝트 수혜로 크게 상승했다. 삼성물산은 반도체주 하락에 동반 하락했다. GS건설은 AI 데이터센터 수혜주로, 삼성E&A는 반도체 투자 수혜로 상승했다.
- 전국 매매수급동향은 98.4로 5주 만에 하락했다(-0.10%p).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44주 연속 상승(+0.09%), 전세가는 55주 연속 상승했다(+0.11%). 수도권 매매가는 70주 연속 상승(+0.20%), 전세가는 71주 연속 상승했다(+0.19%). 서울 매매가는 75주 연속 상승(+0.28%), 전세가는 72주 연속 상승(+0.30%)했다. 지방광역시, 기타지방 매매가는 모두 하락했다(각각 -0.01%). 전세가는 지방광역시 48주 연속 상승, 기타지방 44주 연속 상승했다(각각 +0.03%). 광역시별 매매가는 울산(+0.07%), 인천(+0.05%) 상승, 대전 보합, 부산(-0.01%), 대구(-0.03%), 광주(-0.05%)가 하락했다.
- 한 주간, GW급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 중에서도 GS그룹의 동해 2.4GW 데이터센터 투자 결정에 따른 GS관련주(GS건설, 자이에스앤디)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다. GS그룹은 북평제2일반산업단지에서 AIDC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해당 부지는 GS동해전력이 2019년에 조성하여 분양 중인 산업단지다. 총 분양면적 337,223m² 중 230,147m²이 미분양 중이어서, 데이터센터 부지는 사실상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인허가, 주민 조율 등의 절차를 최소화하여 빠른 착공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다. 지을 수 있는 조건은 이미 갖춰져 있어, 앵커 테넌트만 구체화된다면 사업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GS그룹은 1단계(1.2GW)를 2028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데이터센터 공사비는 MW당 90~100억원정도로, 1.2GW는 약 10조원의 공사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 데이터센터 시공 경험이 있는 GS건설과 자이C&A(자이에스앤디 자회사)가 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약 2년의 공사기간을 고려할 때 빠른 매출화가 예상된다.
- 아이에스동서의 경산 펜타힐즈 더블유 1단지 청약이 완료됐다. 총 1,712세대 중 421세대 미달이다. 면적별로는 84가 1순위에서 마감됐으며, 115는 2순위에서 미달없이 마감됐다. 123이상에서 미달이 발생(123 197세대, 137 198세대, 157 26세대)했다. 이는 청약 결과로 계약률은 계약일 마감인 22일 이후로 확인 가능하며, 초기분양률은 정당계약 시점 이후 약 3개월 기간으로 본다.
- 5월 주택 통제가 있었다. 지표가 더 나빠지고는 있지 않는 가운데, 회복 속도는 느리다. 착공은 전국적으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절대적 레벨은 낮다. 5월 누적 착공은 9.4만호로 연간 25~27만호 속도다. 반면 준공은 1만호 레벨로 내려왔으며, 연말 20만호 레벨이다. 미분양은 6.5만호 수준을 세 달째 유지하고 있으며, 준공후 미분양은 26년 2월을 피크로 감소하고 있다.
- 반도체 투자, 데이터센터, 종전 3가지의 투자 포인트가 섹터 내 존재한다.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는 삼성물산과 삼성E&A를, 데이터센터는 GS건설을, 종전으로 DL이앤씨와 삼성E&A를 추천한다. 이 중에서 하반기 내내 데이터센터 관련 뉴스 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GS건설을 최우선 종목으로 추천한다.

산업 Issue

2026년 7월 6일 | 글로벌 리서치

글로벌 에너지

연료전지 업데이트: 퓨얼셀에너지는 next 블룸에너지가 될 수 있을까

퓨얼셀에너지 380MW 규모 전력공급 계약 체결

6월 말 MCFC 연료전지 기업인 퓨얼셀에너지가 Fit Energy와 380MW 규모의 연료전지를 데이터센터 현장 발전 기저부하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개했다. 380MW 중 30MW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증금이 지급되어 올해 내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 퓨얼셀에너지의 연간 최대 캐파는 100MW이며 2025년 기준 41MW를 가동했다. 퓨얼셀에너지가 '26년 3월 공개한 캐파 확대 계획은 350MW 였으나 데이터센터 관련 파이프라인이 급증함에 따라 6월 최종 목표를 500MW로 상향조정했다.

발전용 연료전지: 2세대 MCFC, 3세대 SOFC

연료전지는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 PAFC/MCFC/SOFC/PEMFC/DMFC 등으로 구분되는데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발전에 적합한 연료전지는 고온에서 작동하고 효율이 60%를 넘는 MCFC와 SOFC로 한정된다. 퓨얼셀에너지와 블룸에너지가 각각 MCFC와 SOFC 연료전지의 대표 기업이다. '26년 4월 발표된 오라클 Project Jupiter(2.45GW)에서는 가스터빈을 도입 계획을 취소하고 그 자리를 블룸에너지 SOFC가 대체하기 시작했다. 블룸에너지 입장에서는 CY27년까지의 물량 확정에 의의가 있으며 현재 제조시설에서는 연간 5GW 수준까지 출하가 가능하다. MCFC는 SOFC와 마찬가지로 천연가스를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대용량 발전에 유리하며 작동 원리상 이산화탄소포집(CCUS)에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전해질(용융탄산염)의 특성상 출력 변화에 부드러운 대응이 SOFC 보다 어렵고 공간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단점이 있어 개발 흐름에서 SOFC가 차세대 발전원으로 여겨진다.

블룸에너지는 브룩필드와 파트너십 5배 확대

블룸에너지는 6월 30일 브룩필드와의 파트너십을 기존 50억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5배 확대했다. '25년 11월 출시한 브룩필드 AI 인프라펀드의 일환으로 최종적으로는 1,000억 달러 배치를 목표로 한다. 이미 지난 실적발표 당시 파트너십 확대를 예고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큰 규모의 프로젝트이다. GE버노바도 '25년 12월 개발 중인 신제품 중 하나로 SOFC 연료전지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타임라인은 상용화까지 최대 2년, 양산까지 최대 3년을 언급했다. 다만 해당 시점이 되면 가격과 규모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가스터빈이 출하되기 시작한다. 퓨얼셀에너지의 MCFC는 OBBBA 연료전지 투자세액공제(ITC) 30%가 2032년까지 가능하지만 여전히 GPM이 안정되지 못해 정책 수혜가 고정비와 프로젝트 손실을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 퓨얼셀에너지 역시 연료전지의 특징인 빠른 납기의 강점이 있고 최근 계약으로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실적 전환 근거는 약하다는 판단이다.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7/6	309,500	318,000	2.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삼성물산 (028260.KS)	7/6	433,500	449,500	3.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 수주 5조원·수주잔고 31.7조원으로 하이테크/데이터센터 중심 수주 모멘텀 지속 원전/SMR 수주 추진, 태양광 파이프라인 19GW 및 2030년 미국 5GW 운영자산 목표
KB금융 (105560.KS)	7/6	170,100	170,900	0.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로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한화에너지스페이스 (012450.KS)	7/6	1,175,000	1,159,000	-1.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 39.7조원 규모의 지상방산 수주잔고와 연내 수주 파이프라인 구체화 기대 7월 미 육군 자주포 현대화 사업 시제계약자 선정 기대감 부각
삼성중공업 (010140.KS)	7/6	23,500	23,700	0.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가 LNG선 매출 비중 확대와 저가 물량 감소로 실적 개선세 본격화 수주 시점 구분에 따른 상선 건조 Mix, 연중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
삼양식품 (003230.KS)	7/6	1,111,000	1,098,000	-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키움증권 (039490.KS)	7/6	348,500	356,500	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중시 거래대금 확대의 직접 수혜로 1분기 연결 지배주주순이익 4,764억원 기록 브로커리지 수수료와 신용융자 이자수익 증가가 실적을 견인
코스맥스 (192820.KS)	7/6	168,300	178,000	5.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선크림 성수기 효과와 중국·미국 법인 성장세가 맞물리며 실적 모멘텀 확대 기대 미국 법인 흑자전환 가능성과 K-뷰티 기반 신규 수주 확대 기대
이수화학 (005950.KS)	7/6	14,120	13,300	-5.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유일 NP-LAB 일관 생산 체계 기반으로 수급 타이트 구간에서 반사이익 기대 황화리튬 사업 성장성 부각에 따른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
심텍 (222800.KQ)	7/6	129,100	118,500	-8.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모리 기반 단가 인상에 따라 2분기부터 가파른 수익성 개선세 전망 SOCAMM 관련 PCB에서의 기회가 예상보다 클 전망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0.07%	+0.38%p	+76.38%	+3.32%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K하이닉스 (000660.KS)	7/6	2,425,000	2,343,000	-3.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2Q26 Preview 매출액 87.1조원(YoY +292.0%), 영업이익 67.6조원(YoY +638.0%) 전망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증권 (016360.KS)	7/6	119,100	121,300	1.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증시 거래대금 확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로 중심 실적 모멘텀 지속 기대 높은 배당성향과 주주환원 기조에 더해 리테일 고객자산 확대가 밸류에이션 재평가 요인
삼성전자 (005930.KS)	7/1	334,000	318,000	-4.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삼성생명 (032830.KS)	7/1	401,000	393,500	-1.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판매 확대와 신계약 CSM 증가로 보험 본업의 이익 체력 개선 삼성전자 배당수익 및 자회사 연결 손익 증가로 투자손익 크게 개선
효성중공업 (298040.KS)	7/1	3,438,000	3,117,000	-9.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향 초고압변압기-리액터 수주 확대로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수혜 부각 2분기 미국향 고마진 차단기 물량 매출 인식과 관세 환급 가능성으로 수익성 회복 기대
삼양식품 (003230.KS)	7/1	1,119,000	1,098,000	-1.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신세계 (004170.KS)	7/1	755,000	690,000	-8.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화점 본업의 외국인 매출 확대와 리뉴얼·팝업 효과로 매출 및 영업이익 개선 흐름 지속 면세점 흑자 전환과 신세계인테리어서날 등 자회사 수익성 회복으로 실적 개선 가시성 상승
한국콜마 (161890.KS)	7/1	99,500	116,300	16.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디 브랜드의 글로벌 수출 확대, 선케어·스킨케어 주문 증가로 ODM 본업 성장성 강화 국내 법인 고성장과 고마진 제품 믹스 개선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 기대
리가켄바이오 (141080.KQ)	7/1	149,900	127,800	-14.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트너들의 임상개발 진전 및 자체 보유 파이프라인의 임상진입, 기술수출 기대 2027년까지 신약 ADC 파이프라인에서 약 10개의 IND 신청 예정
브이엠 (089970.KQ)	7/1	109,300	97,300	-10.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사 M15x 신규 투자와 1c나노 전환 투자 수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며 호실적 기대 2027년 M15x 잔여 공간-용인 1공장 투자 수혜까지 감안 시 증장기 실적 상향 여력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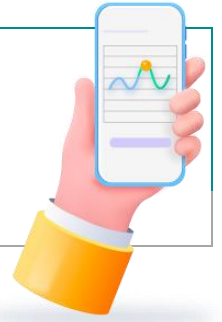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3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6.34%	-1.71%p	+50.88%	-22.21%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51,070	7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공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주 (0154F0.KS)	2026.02.24	15,160	13,140	-1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투자,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32,340	2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9,005	4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592.29	7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된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DRAM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2026.6.22	80.72	60.63	-2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혁명 및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컴퓨터 메모리 및 스토리지 밸류체인 관련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한 순수 메모리 테마 ETF 광범위한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기존 ETF와 달리, HBM(고대역폭메모리) 및 차세대 DRAM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제조사에만 집중 투자하여 차별화된 고성능 모멘텀 수혜 기대
AIRR (미국 중소형 산업재)	2026.6.22	133.25	125.91	-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75% 이상) 중소형 제조업 및 산업재 관련 기업들로 구성 되어 실질적인 미국 제조업 부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ETF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 현상 가속화와 관세 구조 변화 등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 하에서 실질적인 인프라 건설, 기계, 엔지니어링 밸류체인 수혜 기대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3.23	75.80	87.87	1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증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7.5	7.6	7.7	7.8	7.9	7.10	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6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E 51.3, 이전치 51.3) 미국 6월 ISM 서비스지수 (E 51.3, 이전치 51.3) 유로존 5월 소매판매 (E 1.6%, 이전치 1.0%) 유로존 5월 PPI (E 5.8%, 이전치 4.9%) 유로존 5월 산업생산 (E --, 이전치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5월 수출 (E --, 이전치 2.6%) 미국 5월 수입 (E --, 이전치 2.0%) 일본 5월 선행지수 (E 116.9, 이전치 116.1) 일본 5월 동행지수 (E 118.5, 이전치 11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5월 BoP 경상수지 (E --, 이전치 \$28292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6월 공작기계 수출 (E --, 이전치 37.5%) 미국 FOMC 회의록 공개 미국 6월 기준 주택매매 (E 0.9%, 이전치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6월 PPI (E 6.8%, 이전치 6.3%) 중국 6월 PPI (E 4.1%, 이전치 3.9%) 중국 6월 CPI (E 1.1%, 이전치 1.2%) 미국 6월 기준주택매매 (E 0.9%, 이전치 3.2%) 	
7.12	7.13	7.14	7.15	7.16	7.17	7.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5월 광공업생산 F (E --, 이전치 -1.7%) 중국 6월 수출 (E --, 이전치 19.4%) 중국 6월 수입 (E --, 이전치 27.4%) 중국 6월 수입 (E --, 이전치 27.4%) 미국 6월 CPI (E 3.9%, 이전치 4.2%) 미국 6월 근원 CPI (E 2.9%, 이전치 2.9%) 미국 NFB소기업 낙관지수 (E --, 이전치 9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6월 수입물가지수 (E --, 이전치 24.8%) 한국 6월 수출물가지수 (E --, 이전치 46.9%) 한국 6월 실업률 (E --, 이전치 46.9%) 일본 5월 핵심기계주주 (E --, 이전치 15.6%) 중국 6월 소매판매 (E --, 이전치 -0.6%) 미국 6월 PPI (E --, 이전치 6.5%) 유로존 5월 산업생산 (E --, 이전치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기준금리 결정 (E 2.75%, 이전치 2.50%) 미국 베이지북 공개 미국 7월 NAHB 주택시장지수 (E --, 이전치 35) 미국 6월 소매판매 (E 0.0%, 이전치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6월 주택착공건수 (E --, 이전치 -15.4%) 미국 7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P (E --, 이전치 49.5) 유로존 6월 CPI (E --, 이전치 2.8%) 유로존 6월 근원 CPI (E --, 이전치 2.4%)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입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